

# 대불련, 제5회 '영부디스트 캠프' 성료

8월 14~17일 강화도 전등사, 보문사 일대에서



대불련은 회원 120여명과 함께 8월 14~17일 3박 4일 일정으로 강화도 전등사와 보문사 일대에서 영부디스트 캠프를 진행했다.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를 논하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경선, 이하 대불련) 'Young Buddhist Camp'가 8월 14~17일 3박 4일 일정으로 강화도 전등사, 보문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해유스호텔에서 거행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강화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계성 스님,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조계종중앙신도회 이기회 회장, 대불련총동문회 백효희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전준호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불련 캠프는 입학식에 이어 석중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과 가면토크, 붓다위즈, 19금 붓다, 전등사, 보문사 순례와 별빛 문화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캠프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법우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Ice Break 프로그램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이야기를 나누는 가면토크를 비롯해 '미니운동회'와 '붓다위즈' '19금 붓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첫날인 14일, 입학식은 강화도 서

이아은 기자

# 포교원, 제8회 전문포교사 합격자 발표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9월 27~28일 품수식

제19회 포교사 및 제8회 전문포교사 합격자가 발표됐다.

사 자격을, 흥현승(화계사불교대학)씨가 24세로 최연소자 포교사 자격을 받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13일 '제5차 포교원회의'를 열고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을 최종합격자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전문포교사고시 합격자는 강락예 포교사(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포교분야) 등 79명의 포교사가 전문포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일반포교사고시 합격자는 △대구경북 지역 163명 △부산지역 139명 △서울지역 108명 순으로 많았으며, 송택규(봉은사불교대학)씨가 86세로 최고령자 포교

합격자는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포교사단 8재계수계실천대법회에서 정식 품수를 받는다.

이아은 기자

#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강사 파견기관 모집

9~11월 220회 강사 파견

준을 통과한 30명의 강사를 배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복지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55곳의 어르신 돌봄 기관에 총 220회에 걸쳐 웰다잉 강사를 파견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8년 웰다잉운동 본부를 설립해 불교의 생사일여 사상을 바탕으로 좋은 죽음 교육과 존엄한 죽음 준비를 통한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를 위해 웰다잉 강사를 파견하고 웰다잉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웰다잉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일체 비용은 안전행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불교여성개발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02)722-2101 이아은 기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인 성해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 너머(1. 입문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는 주제로 9월 18~10월 30일, 매주 목요일 7~9시, 총 6강(1, 2학기로 구성)의 강좌를 연다.

이아은 기자

# "언제 어디서든 염불하면 청정일심 돼"

## 염불수행 정진하는 사찰·단체

"평상시 염불을 배우고 정도법문을 닦아 두면 목숨을 마칠 즈음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허운 대사에게 인가받은 중국 위양종 9대 조사인 선화상인(1918~1995)은 염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염불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염불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잡념을 한 생각으로 정리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지만, '판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등 자신에게 익숙한 불보살 명호를 칭해도 좋다.

하지만 어느 새인가부터 염불은 선불교 중심의 한국 불교에서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다 최근 들어 염불수행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만일동안 염불결사를 하는 사찰과 신도회를 비롯해, 염불수행을 하는 인터넷 모임 등이 있으며 염불봉사활동으로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사팀도 있다. 스님들의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염불수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인 염불원(念佛院)이 지난해 남양주 봉선사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17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가 열렸다. 염불의 대중화와 일상화, 생활화 모색을 위해 열렸던 이 행사에는 108명이 응모하고, 12개 팀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 정해진 기간 동안 염불수행

염불수행을 하는 모임이나 사찰들 가운데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염불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들어 염불 수행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만일동안 염불결사를 하는 사찰과 신도회를 비롯해 염불봉사활동으로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사팀도 있다. 사진은 2009년 염불만일회의 염불정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만일염불결사(회주 보광)는 2000년 6월 6일 입재해 2027년 10월 22일 회향하는 1개월 안거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평균 1000~1500명의 재가불자들은 안거에 들어 1달 동안 염불수행 정진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건봉사사는 지난 2012년 12월 8일 만일염불기도 1차 3년 입재에 들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 (033)682-8100

이밖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 53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온 1개월 안거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평균 1000~1500명의 재가불자들은 안거에 들어 1달 동안 염불수행 정진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건봉사사는 지난 2012년 12월 8일 만일염불기도 1차 3년 입재에 들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 (033)682-8100

## 염불봉사로 수행정진

염불봉사를 통해 심신을 증장시키는 모임도 있다.

불교TV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정선)은 1996년 창립돼 50여 명의 회원으로 꾸려진 지역봉사단체다. 부산지역사찰의 법회와 행사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불자가 임종하면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해 염불봉사로 유가족을 위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실천에 매진하고 있다. (051)633-4020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염불봉사팀(팀장 박기환)은 처음 포교사들의 목적습의를 위해 모였다가 장례염불 봉사

시작했다. 현재 40여 명의 포교사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장례염불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염불봉사를 하며 정진하고 있다. (062)375-0107

염불봉사단 관음회는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염불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염불봉사 교육을 받으면서 생긴 이 모임은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종교가 없는 이들이나 스님을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02)723-5101

## 안거동안 염불정진에만 매달려

봉선사 염불원에서는 2013년 동안계 기간 원장 인목 스님(조계종 의례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어 외부와 단절하고 아미타불 수행을 정진했다. 하루 일과에는 1시간 30분 동안 진언과 다라니를 외우는 아침송주, 징과 북을 치며 염불하는 관세음보살 등을 비롯해, 저석송주와 염불선 등 오로지 염불을 위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염불 수행 정진의 열기가 점점 더해지는 가운데 일반 불자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염불수행을 하면 좋을까.

지난 6월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 포럼에서 인목 스님은 시간대별 염불을 제안했다. 스님은 "공양을 시작하고 끝날 때, 운전을 할 때, 업무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짧막한 의식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느니 염불한다고, 언제든 염불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주 등 칭명염불도 좋고 육자대명왕 진언, 광명진언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화쟁아카데미, 9월 가을강좌 개설

이미령·성해영 교수 '붓다의 행복론'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주제로

화쟁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붓다의 가르침과 종교를 주제로 한 두 강좌를 오는 9월 개설한다.

이미령 교수의 '붓다의 행복론'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붓다의 가르침을 '행복'이라는 소박한 주제로 풀어낼 계획이다. 니카야 경전에 담겨있는 개인적 차원의 행복, 사회적 차원의 행복, 종교적 차원의 행복으로 붓다의 행복론을 해석하는 이미령 교수의 강의는 평소 불교에 관심이 있었으나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불광교육원 전임강사인 이미령 교수가 '붓다의 행복론'을 주제로 9월 17일~11월 5일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8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한다.

성해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마음 너머의 그곳으로 안내하는 통로'라는 견해를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 종교적 체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이런 방식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종교의 기본적인 이해와 종교 간 상호 대화에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조망할 계획이다. 현대사회에 무엇이 '종교' 인가를 알기 쉬운 언어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인 성해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 너머(1. 입문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는 주제로 9월 18~10월 30일, 매주 목요일 7~9시, 총 6강(1, 2학기로 구성)의 강좌를 연다.

이미령 교수는 "불교는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한, 사람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붓다는 평생 사람을 만나서 쉬

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붓다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었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접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해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마음 너머의 그곳으로 안내하는 통로"라는 견해를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 종교적 체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이런 방식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종교의 기본적인 이해와 종교 간 상호 대화에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조망할 계획이다. 현대사회에 무엇이 '종교' 인가를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강좌로 종교적 신앙과 삶을 넘어선 깨달음에 대해 고민하는 불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강좌다.

성해영 교수는 "종교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이토록 애증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종교가 사회적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지적 사기이거나 원망(願望)의 투사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담론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시간의 오해를 이루만지고, 종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강료는 강좌당 1만원이며 화쟁아카데미 홈페이지(www.hwajaeng.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70)8872-2023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장: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2014년 8월 10일 부터 ~
- ◆전행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개강: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 ◆교수진: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무 -

## 불교예술대학

◆교수: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2014년 8월 10일 ~
-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강: 2014년 9월 5일 금요일

## 활안스님 제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3회 선문염송 특강

◇일시: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장소: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